

e-Book, 알싸고 u-Book으로 비상

경비절감, 가용성·기능성 확대, 간편 휴대 등
이기종 결합, 'e-Book 업그레이드'... 시장 경쟁 치열 전망

글_이향선(ZDNet Korea 편집주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인간을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게 했다.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공간인 인터넷의 출현과 급속한 발달은 인간의 정보 접근법을 새롭게 바꾸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출판산업의 패러다임도 바꾸어가고 있다. 특히 하이퍼텍스트 프로세서를 통해 글을 쓰고 가상공간에 존재하는 막대한 콘텐츠를 자유롭게 접하며, 저장, 검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자적인 책의 개념인 e-Book의 탄생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초창기 e-Book은 사용자들의 외면, 기술의 부재 등 순탄하지 못한 과정을 거쳐왔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은 초창기 e-Book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면서 2004년 회복기를 지나 지난해부터 본격 성장세에 접어들었다. 올해 e-Book은 경비절감, 높은 가용성과 기능성, 간편한 휴대 등이 주목받으면서 국내 시장 규모가 1,400억 원대로 성장해 차세대 출판계의 효자이자 뉴미디어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e-Book을 빛내는 주요 기술

e-Book의 종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e-Book에서 주요 트렌드가 되고 있는 기술 이슈 중에서 데이터들의 저장 및 서비스되는 형식을 따른 기술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기로 한다.

(1) 표준화된 기술 XML

초기의 e-Book 산업에서는 표준 포맷으로 XML이나 PDF로 할

것이냐로 논쟁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은 자신들의 콘텐츠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XML 형식을 선호하였으며, 오프라인 인쇄를 기반으로 종이책을 출판하던 출판사들은 자신들의 출판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PDF를 선호했다. 그러나 XML이 표준으로 채택되었고, 다양한 제작 및 변환 솔루션들의 등장으로 e-Book 서비스 업체들이 이 양쪽 형식을 지원하는 추세가 되어 논쟁은 의미가 없어졌다.

XML 형식은 세계적인 e-Book 표준화기구인 Open e-book Forum에서 표준으로 채택한 e-book 문서의 표준 포맷으로 현재 'OEB 1.2' 버전까지 나와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 e-book 컨소시엄(EBK)에서 XML을 기반으로 하는 e-book 표준인 EBKS1.0을 발표했다.

(2) 기존 출판물과 유사한 PDF

전자출판 시대를 리드해왔던 어도비가 인터넷 시대를 겨냥한 문서 포맷 PDF는 전자출판 데이터의 인터넷 유통을 위한 주요한 문서 포맷으로 활용되어 왔다. e-Book을 위한 가장 용이한 문서양식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HTML 및 XML 데이터와의 호환성 문제 등으로 표준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PDF를 XML로 변환하는 기능을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

(3) 멀티미디어 지향의 Flash

XML과 PDF가 표준화 논쟁의 중심에 있을 때 2001년 멀티미디어 기능이 강력한 매크로미디어(2005년에 어도비에 인수되었음)사의 플래시 형식이 e-Book의 새로운 포맷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멀티미디어 기능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아동

용 동화를 서비스하는 업체들 대부분이 e-Book의 기본 포맷으로 플래시를 채택했다. 이러한 아동동화를 멀티 동화라고 하는데 e-book 전문 업체들이 다수 채택하고 있으며, 이제는 e-book의 주요한 범주 중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4) 정보 참고 웹 DB

e-Book의 개념이 일반화되기 이전부터 정보가 될 수 있는 각종 분야의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 베이스를 웹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웹DB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열람이 가능하고, 익스플로러 등과 같은 웹 지원도구 외의 다른 애플리케이션 툴이 필요하지 않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어 정보의 갱신이 빠르다.

여러가지 기술의 발달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e-Book도 급단의 열매를 맺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1) 더 많고, 더 빠른 정보의 e-Book 시급

세계 여러 나라에서 e-Book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각 대학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서적들의 e-Book화가 아직은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100만 권의 장서를 보관하고 있는 중국의 베이징 이공대학 도서관 서고에는 3000권의 e-Book만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내용도 진부하며, 빨라야 이미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수개월 전에 접한 정보라는 것이다.

(2) 저작권 및 판권 문제의 해결

인터넷의 보급과 전자상거래의 끊임없는 확산으로 디지털화는 이미 대세가 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산업 표준과 법률 시스템은 아직 정비되지 않아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디지털출판 분야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판권 문제다.

미국과 같이 판권 시스템이 비교적 잘 구축된 나라는 1998년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를 제정해 판권보호기술의 위법 행위 문제를 해결하고, 판권관리 정보도 정의하고 있다.

작가, 연계방식, 권리양수 조건, 권리 유효기간 등의 판권 관리정보는 권리 소유자뿐 아니라 이용자들의 작품에 대한 이용허가, 이용자의 작품 이용 상황관리, 저작권 침해 행위 추적 등도 편리하게 해준다. 이 법을 통해 미국은 디지털작품에 대한 불법 행위가 근절됐으며, 디지털출판, 발행, 배포 등의 단계도 합리적인 법률 아래 질서 있게 수행되고 있다. 즉 e-Book의 경우 협소한 판권 확보 경로와 부적합한 정보 확산 네트워크 유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출판물에 대한 판권 정책이 얼마나 유효하게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3) 산업사슬 정비 필요

e-Book 산업의 콘텐츠에는 작가와 출판사가 있고, 유통은 디지털 도서관, 온라인 전자서점을 통해, 그리고 독자는 컴퓨터와 휴대폰 등 전자 리더 장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그 중 기술제공 업체들은 디지털 서적의 출판, 발행, 열독과 관련된 전체 솔루션

을 제공하며, 이 모든 단계를 관통한다. 이 때문에 작가, 출판사, 도서관, 온라인 서점, 기술제공 업체, 휴대용 리더기 제공업체, 독자 등이 모두 디지털출판 산업 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기술 업체들은 디지털 출판사와 온라인 유통 업체의 전문 역량을 지원하면서 디지털출판 기술 개발과 연구에만 집중해 출판사 등이 가장 선진적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데이터 제작 업체와 기술개발 업체의 역할이 분명해야 하며, 디지털 상품의 콘텐츠 조정과 유통경로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각각의 업체가 많은 노력을 투자하더라도 성과는 적을 수밖에 없게 된다. 산업 사슬 내의 각 부분이 밀접히 결합되어야 연합체를 형성할 수 있고, 모두가 힘을 합쳐 각각의 역할에서 벗어나 선진 기술과 우수한 솔루션을 함께 공유해야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모바일 컨버전스가 만드는 장미빛 미래

급속히 확산되는 유무선 브로드밴드 기반 하에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강해져 이기종 간의 컨버전스(융합) 현상이 e-Book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모바일 콘텐츠의 성장 추세와 더불어 현재 PC기반의 e-book 서비스는 더 발전된 서비스 환경이 구축되고, 그에 따른 콘텐츠의 생산과 수요도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e-book의 서비스 매체가 PC를 넘어 모바일 및 PDA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비즈니스 측면에서 보면 교육분야의 전망이 밝다. 2005년 PWC의 자료에 의하면 2004년 미국 전체 e-book 시장 규모인 6억 7,200만 달러 중 초중등 및 대학 e-Book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은 55퍼센트로 3억 6,000만 달러에 달한다. 같은 해 유럽의 경우 교육 교재로서의 e-book이 차지하는 비중은 35퍼센트로 연평균 118퍼센트의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유망한 시장이다.

한편 MP3 플레이어, 위성DMB폰, PMP, PSP, 각종 기능을 탑재한 휴대폰 등 고성능 휴대용 단말기들이 등장하면서 e-Book은 이들 단말기에 탑재되거나 컨버전스화 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인해 기존의 e-Book 단말기보다 범용 휴대용 단말기가 인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단말기의 발달과 함께 무선 인터넷 환경의 구축과 유비쿼터스 환경의 발전으로 e-Book은 u-Book으로 진화하고 있다.

최근 DMB 방송이 본격화 되고 이를 지원하는 휴대용 단말기 들이 속속 등장하고 이 분야의 수요는 급증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동통신사에서도 본격적으로 u-Book의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출판 관련사나 e-Book 관련사들이 이 분야의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e-Book이 알을 깨고 u-Book으로 멋지게 비상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